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HELL'S FOUNDATIONS QUIVER

가제 : 전율하는 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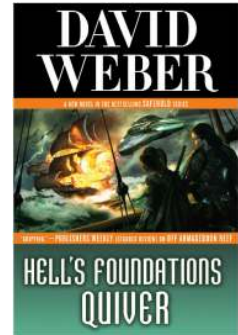
저자 : David Weber

출판사: Tor Books

발행일: 2015년 9월 8일

분량 : 608 페이지

장르 : 소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시리즈의 마지막, 지구 종말 후 우주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전쟁

《Off Armageddon Reef(가제: 아마게돈 리프를 떠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7권이 발표된 데이빗 웨버의 공상과학 시리즈 ‘안전한 피난처’, 그 마지막 편이 오는 가을 발표될 예정이다. ‘안전한 피난처’는 새로 나오는 책마다 높은 판매고를 기록하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인기 시리즈로, 인류와 외계 종족의 치열한 싸움을 박진감 있게 그려낸다.

수세기 전, 인류는 그바바라는 외계 종족과 거대한 전투를 벌이고 참패한다. 살아 남은 인간은 극소수. 이들은 지구와 멀리 떨어진 ‘Save Haven(안전한 피난처)’로 달아나 가까스로 연명한다. 은하계 곳곳 다른 곳들로도 숨어들었지만, 그바바는 인류의 씨를 말린다는 목표로 철저한 정찰에 나섰고 숨은 인간 무리를 모조리 찾아내어 말살시킨다. ‘안전한 피난처’에 숨어든 인류만이 그바바의 탐색에 걸려들지 않고 생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몇 세기가 지나, 살아 남은 인류의 후손들은 옛 역사를 모두 잊고 살아간다. 새로운 정착지에서 권력을 잡은 무리가 세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세뇌를 당한 결과였다. 과거를 다 잊은 인류는 중세 시대가 영원히 이어지고 있다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종교의 계율에 따라 생활한다. 권력층은 인류 사회에 두 번 다시 산업 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속셈이지만, 일반인들은 이를 전혀 알아채지 못한다.

하지만 ‘안전한 피난처’에 첫 발을 디딘 인류 모두가 그 계획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힘을 끌어모으기 시작한 반대 세력들, 지배층과 견해를 달리 했던 사람들이 인류가 먼 옛날부터 발전시킨 우수한 기술과 지식을 어딘가에 몰래 숨겨두었다. 멀리 아스로스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아바타도 은밀히 감춰진 존재 중 하나로, 먼 옛날 지구에 살던 사람들의 아바타 중 하나다. 그리고 이

제, 멀린이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잠에서 깨어나 인류의 번영을 다시 한 번 시작하고 우주에 인류가 머물 곳을 새로이 선언할 준비를 마쳤다.

인공지능 아바타를 통해 은밀히 감춰진 인류의 기술과 지식, 인류의 운명이 달린 치열한 전투

멀린은 ‘안전한 피난처’ 한 켠에 자리한 채리스 왕국을 찾아가 자신이 보유한 먼 옛날 인류의 혁신적 기술과 지식을 전파하고, 피난처를 지배한 교회 권력에 함께 맞설 것을 요청한다. 지배층인 교회 집단과 반대 세력, 두 집단 간에 길고 잔혹한 전투가 이어지고 멀린이 가진 인류의 최신 기술 덕분에 새로운 무기를 제작한 채리스 왕국은 마침내 ‘안전한 피난처’의 실권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이제 인류의 미래는 또 한번 바뀌게 되었다.

멀린 아스로스는 온갖 모습으로 변장하고 어디든 출몰하며 이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남몰래 다양한 능력을 발휘한다. 과연 멀린의 진짜 존재는 무엇일까? 지배층이 바뀌 평화가 찾아올 것만 같던 피난처에 새로운 존재가 나타나면서, 누구도 알지 못하던 수많은 비밀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비밀에는 멀린에 관한 충격적인 비밀도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이들이 알게 된 진실은 무엇일까?

<저자 소개>

데이빗 웨버(David Weber)는 베스트셀러 시리즈 《Honor Harrington》의 작가로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제목 : THE MIRROR WORLD OF MELODY BLACK

가제 : 멜로디 블랙의 거울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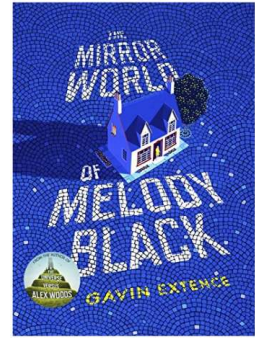
저자 : Gavin Extence

출판사: Hodder & Stoughton Ltd

발행일: 2015년 3월 12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난데없이 눈 앞에 나타난 옆집 남자의 시체, 그 날 이후 정신이 뒤흔들린 어느 젊은 여성의 삶
머리에 운석을 맞은 외톨이 소년과 괴짜 노인의 우정을 다룬 데뷔작 《우주 vs. 알렉스 우즈》(국내 2014년 번역 출간)로 영국 작가협회 상 등을 수상하며 영국 문단의 젊은 기대주가 된 개빈 익스텐스가 또 한 번 깊은 메시지가 담긴 독특한 소설을 완성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양극성 장애로 인생이 송두리째 뒤집힌 한 여성의 어두운 삶을 위트있게 그려낸 작품이다.

그 모든 변화는 죽은 남자를 발견한 어느 수요일부터 시작됐다.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면서 기자를 꿈꾸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인 에비는 토마토 통조림을 빌리려고 이웃에 사는 사이먼의 집을 찾아갔다. 거기서 죽은 채 쓰러진 사이먼의 시체를 발견한 에비. 누구든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사건이지만, 에비는 겉보기에 너무나도 침착한 태도를 보인다. 그 누가 알았으랴, 다소 의아스러웠던 에비의 그런 반응이 그녀 내면에서 시작된 소용돌이 같은 변화를 알리는 경고등이었음을. 얼마 후 에비는 견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는 조증을 경험한다. 그리고 연이어 찾아온 끝없이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정신 상태. 다시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긍정적인 기분이 삼시간에 솟구친다. 머릿속에서 벌어진 이 급격한 변화로 정신적 안정을 잃어버린 에비의 병명은, 우리가 흔히 조울증이라고 말하는 양극성 장애였다.

에비는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난 변화를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애를 쓴다. 그녀를 사랑하지만 롤러코스터처럼 변화무쌍한 감정 상태를 견디느라 애를 먹는 남자친구 벡, 늘 에비를 도와주는 정신과 전문의 바바라 박사가 곁에 있지만 극도의 혼란과 뒤이어 엄습하는 절망감을 그녀 스스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 어느 순간 광기에 가까운 즐거움에 사로잡혔다가 끝없는 우울의 나락에 빠지는 생활. 주변 사람들이 자신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토로하거나 한창 정신을 못차리는 동안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끝없이 늘어놓는 이야기들도 지긋지긋할 뿐이다. 늘 곁에 있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도 견딜 수 없다. 에비가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남들이 절대 알 수 없는 그 문제가 에비 자신을 영원히 파괴해 버릴 수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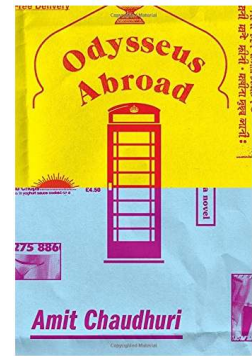
양극성 장애로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생활, 급격한 감정 기복에 담긴 인생의 오르내림

오락가락 정신 없는 혼란의 삶 속에서 예비 앞에 나타난 또 한 명의 인물 멜로디 블랙. 예비 치료를 받으러 다니다가 우연히 만난 이 침대 청소년은 과연 누구일까? 작가는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늘 불안에 떠는 양극성 장애 여성의 일상 생활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무엇이 멀쩡하던 사람으로 하여금 이성의 끈을 놓고 혼란에 빠지도록 만들까? 뜨거운 열정과 조증 상태의 차이는 무엇일까? 작가는 한 여성이 정신 질환으로 급격히 무너지는 모습을 감각적이고 매력적인 필체로 그리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음을 상기시키고, 삶의 그러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저자 소개>

개빈 익스텐스(Gavin Extence)는 체스 선수로 활동하다가 대학에서 영화를 공부하고 현재 영국에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데뷔작인 《우주 vs. 알렉스 우즈》로 아마존 라이징 스타 상, 작가 협회 상, 워터스톤 상 등을 휩쓸며 영국의 가장 촉망받는 젊은 작가로 급부상했다.

제목 : ODYSSEUS ABROAD
가제 : 해외로 간 오디세우스
저자 : Amit Chaudhuri
출판사: Knopf
발행일: 2015년 4월 7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소설



80년대 런던을 살아가는 두 인도 남자의 산책, 이민자의 눈으로 이야기하는 외국에서의 일상

대체 총리가 집권하던 1985년, 영국 런던에서 살아가는 벵갈 출신의 두 남자. 삼촌과 조카 사이인 두 사람이 산책하면서 나누는 삶의 이야기는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를 연상시킨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며 시인을 꿈꾸는 스물두 살 청년 아난다. 그는 자신이 떠나온 고향이나 벌써 몇 년째 유학 중인 영국 어느 한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이질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한다. 절친한 친구도 없고 여자 친구도 없이 늘 혼자 집과 학교만 오가는 외로운 생활. 밤마다 시끌벅적한 파티가 열리는 윗층 사람들은 아난다에게 커다란 절망감을 안겨준다. “이방인이 잠을 잘 때 평범한 사람들은 깨어 있다. 그들은 남들 다 자는 시간에 깨어 있다.” 아난다는 소음을 들으며 이런 생각에 잠긴다. 그에게 유일한 낙이 되는 사람은 같은 런던 땅에 사는 삼촌 라데시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 저녁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산책을 한다. 작가는 이 책의 첫 절반 가량에 걸쳐 특별한 즐거움 없이 아난다의 생활을 집중적으로 묘사하면서, 자신을 아웃사이드로 규정하고 향수병에 괴로워하면서도 그 고립된 감정 속에서 로맨틱하고 시적인 기분을 함께 느끼는 아난다의 복잡한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어느 때와 같이 삼촌을 만나러 간 아난다. 책 후반부 절반은 아난다와 삼촌이 런던 곳곳을 돌아다니며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삼촌인 라데시는 일찍 은퇴한 중년의 나이지만 여자와 한 번도 잠을 자본 적이 없는 스톱갓이다. 성별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화장실에 갈 때마다 ‘큰 일’, ‘작은 일’ 등 무슨 용변을 봤는지 일일이 보고하고, 사후 세계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한 책을 광적으로 좋아하는 괴짜 같은 사람인 라데시. 두 사람이 블롬스버리와 인근 거리를 걸어가며 나누는 대화를 통해 독자는 아난다의 가족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특히 라데시가 인도에서 가장 친한 친구를 아난다의 엄마에게 소개시켜 준 장본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된다. 아난다와 삼촌 라데시는 음악을 사랑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공통점을 발판 삼아 굳이 서로 표현하지 않지만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며 살아간다. 차이가 있다면 아난다는 외로운 유학 생활을 ‘자신이 사랑 받던 곳과 분리된 기분’이라고 말하며 인도에 대한 그리움을 인정하지만 라데시는 부인한다는 점이다. 라데시가 아난다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가 젊은 시절 품었던 야망과 가족들로 인해 어깨에 짊어져야 했던 부담감을 알게 되고, 고향에서 제대로 찾을 수 없었던 자신의 본모습을 다른 어딘가에 완전히 귀속되어 온전히 찾고 싶어했던 그의 좌절된 동경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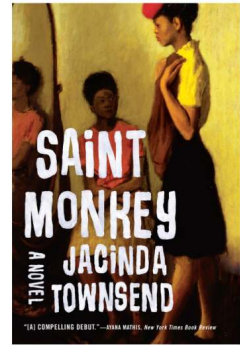
<율리시스>를 연상시키는 구성, 유머러스한 대화에 담긴 일상의 깊이와 삶의 기술

차를 마시는 일상, 치즈와 피클이 들어간 샌드위치, 지루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 1980년대 런던의 모습이 세심하게 표현된 소설의 배경 속에는 인종차별, 스킨헤드족, 신 나치주의자들, 이민자들을 꺼리고 싫어하던 사회 분위기가 그대로 녹아 있다. 더불어 작가는 벵갈어를 아난다와 라데시가 즐겨 찾는 인도 식당에서 주문하는 요리 이름이나 두 사람의 대화 중간중간에 별다른 설명 없이 포함시켜 독자들도 두 사람처럼 이질적인 환경에서 느끼는 생경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한다. 특별한 사건이나 줄거리는 없지만, 지나치게 우울한 감정에 빠지지 않고 때로는 상스러운 말도 건네며 유쾌하게 이어지는 두 주인공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그 무엇보다 깊고 살아 숨쉬는 인생의 기술을 배울 수 있음을 일깨운다.

<저자 소개>

아미트 초두리(Amit Chaudhuri)는 작가이자 음악가로 현재까지 소설 다섯 편과 비소설 네 편을 발표했다. ‘커먼웰스 작가’상,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도서 상’ 등 다양한 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영국의 다양한 매체에 글을 기고해 왔다. 현재 영국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교에서 현대문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목 : SAINT MONKEY
가제 : 성스러운 원숭이
저자 : Jacinda Townsend
출판사: W. W. Norton & Company
발행일: 2015년 2월 2일
분량 : 368 페이지
장르 : 소설



인종 차별이 극심하던 50년대, 켄터키 주 시골에서 만난 두 흑인 소녀의 힘겨운 성장기

애팔레치아 산맥, 스틸링 마운틴에 둘러싸인 켄터키 주의 시골 마을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깊은 우정을 나누며 살고 있는 두 소녀 오드리와 캐롤라인. 열네 살인 두 소녀는 ‘유색 인종’들만 있는 구역에 살면서 혼란스러운 사춘기를 함께 보낸다. 때는 인종 차별이 극심하던 1950년대. 흑인인 두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걸핏하면 무시 당하며 살아야 했고 서로를 감싸안으며 우정은 더 돈독해져만 갔다. 두꺼운 모범생 안경을 쓰고 4분의 3박자 복음성가를 즐겨 흥얼거리는 오드리는 조용하고 양전한 소녀지만 피아노 치는 실력만큼은 온 교회를 떠들썩하게 만들 정도로 아주 특별하다. 그런 오드리의 눈에 너무나 예쁘기만 한 캐롤라인은 헐리우드 스타를 꿈꾸는 인기 많은 소녀다.

가난하지만 소박하게 사는 두 소녀는 각자 아프고 절망적인 가정사를 안고 산다. 오드리의 아버지는 그녀가 겨우 열한 살 되던 해 공군에 지원했고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위해 한국땅을 밟은 첫날, 불행하게도 아군이 쏜 총에 맞아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 엄청난 충격을 달랠 새도 없이 하루 아침에 가장이 되어버린 엄마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일을 두 가지나 하며 돈을 버느라 집에는 거의 들어오지도 못했다. 캐롤라인의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백인 남자에게 겁탈을 당해 심신이 무너져버린 할머니를 모시고 부모님과 살고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한다. 경찰이 찾아낸 범인은 다름 아닌 캐롤라인의 아버지. 그는 늘 가정에 충실하던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도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는다. 캐롤라인은 두 번 다시 아버지와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할머니를 모시고 집을 나가버린다. 남자친구와의 갈등, 소원해진 친구들과의 문제까지 연이어 터지면서 캐롤라인은 점점 더 암울한 삶 속에 갇히고 만다.

오드리와 캐롤라인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어린 시절에 비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우정을 키워갔다. 그러나 오드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면서 둘은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인생으로 접어들게 된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한창 유명세를 타던 공연장 ‘아폴러 시어터’의 캐스팅 담당자 글레이서가 어느 장례식장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오드리를 보고 그녀의 재능을 알아본 것이 시작이었다. 그는 오드리에게 뉴욕에 와서 함께 공연을 하자고 제안하고, 이 절호의 기

회를 놓칠 수 없었던 오드리는 고향을 떠나 재즈 열풍이 불던 할렘 가에서 작은 하우스 밴드 활동을 시작한다.

도시에서 새 삶을 시작한 소녀와 절망이 깊어만 가는 다른 소녀, 둘의 우정과 갈등, 삶의 무게

고향에 남은 캐롤라인의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극심한 차별과 냉대가 가득한 마을에서 아픈 할머니를 모시며 생계를 위해 돈까지 벌어야 하는 생활에 화려한 스타를 꿈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온데간데 없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지경이 된다. 음악가로 첫 발을 내디딘 오드리의 삶도 순탄치만은 않다. 눈이 멀 것만 같은 도시의 화려한 조명과 고향 마을과는 비교도 못할 만큼 길거리에 가득한 인파, 무수한 기회가 가득한 도시에서 어린 나이에 재능 하나만으로 공연을 하게 된 오드리는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고, 한 번 실패하면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 그 와중에 그녀에게 찾아온 사랑. 오드리보다 열한 살이나 많은 베이스 기타 연주자 오거스트는 오드리에게 푹 빠져버린다. 캐롤라인과 오드리, 두 사람의 운명은 어디로 가게 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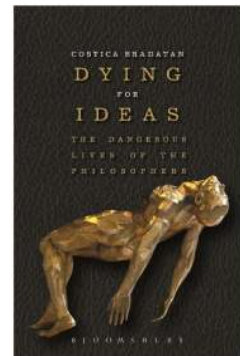
두 흑인 소녀의 우정과 가슴 아픈 성장기를 강렬하게 그린 작품으로, 작은 동네에서 차별 속에 숨죽인채 살아야 하는 절망과 재즈가 붐을 일으킨 미국의 대도시에서 뿜어져 나오는 활기찬 에너지를 두 소녀의 삶을 통해 대비시키며 당시 50년대 미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 소개>

재신다 타운센드(Jacinda Townsend)는 하버드 대학교와 듀크 대학교 법학대학에서 공부하고 아이오와 주 작가 워크숍에서 예술석사를 취득했다. 현재는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며 작가로 활동 중이며 위 작품이 데뷔작이다.

NON-FICTION

제목 : DYING FOR IDEAS
가제 : 사상을 위한 죽음
저자 : Costica Bradatan
출판사: Bloomsbury Academic
발행일: 2015년 4월 23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철학



자신이 믿는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은 철학자들, 그 죽음의 의미

소크라테스, 히파티아, 조르다노 브루노, 토마스 무어, 안 파토츠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저자는 이 책에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리고 현대 철학에서 말로 설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주제를 다룬다. 바로 철학자의 죽음과 희생이다. 앞서 나온 철학자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세상의 핍박과 반대에도 자신이 추구하는 사상을 버리지 않되 목숨을 버리거나, 혹은 그 사상을 포기하고 그냥 목숨을 부지하는 것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그리고 둘째는, 이들 모두가 목숨을 버리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 사상가들의 극적인 죽음은 그들 각자의 비극적인 인생에 그치지 않으며, 살아 생전 추구하던 사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신이 추구하는 것, 자신의 신념을 위해 죽음을 택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철학적인 연구의 한 과정이었다. 해피엔딩을 선호하는 오늘날의 문화 때문인지, 현대 철학자들이 전하는 사상은 대부분 시대의 주류를 이룬 생각들을 마치 대변인처럼 그대로 전하는 경우가 많다. 저자는 바로 그러한 태도에 반기를 들고 이 책에서 과거 철학자들이 용기 있게 택한 죽음의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철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철학자들이 자신의 사상과 주장을 다른 이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자신이 죽고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고 판단한 순간, 그들이 마주했던 한계 상황이 바로 이 책의 주제다. 잔인한 폭력과 압력에 신념을 마음껏 펼치지지도 못하고, 더 이상 주장을 내세우지 못하고, 그저 입을 다물어야만 하는 시점이 오자 철학을 자신의 육체를 이용하는 하나의 행동으로 탈바꿈시켜 표현하기로 한 것이다. 철학의 역사에서 이 놀랍고도 독특한 사상가들의 선택과 의미는 등한시되어 왔지만, 저자는 철학자가 죽음이라는 방법을 떠올리고 실천하게 된 사연을 다양한 시각으로 고찰한다.

‘죽음’이라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던 철학자들의 삶, 그 속에 담긴 삶의 소중함

전통적으로 삶의 기술을 제시하는 학문이라 여겨진 철학의 역할, 신체를 개인이 초월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나, 철학계의 고전적인 주제로 다루어진 죽음의 의미, 인간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죽음을 이용하는 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순교자처럼 목숨을 희생하는 행위를 실천에 옮긴 이후 실제로 그 철학자들에게 쏟아진 관심과 신화적 인물로 남게 된 이야기를 낱알히 들려준다.

철학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야기 속에는 소크라테스, 하이데거의 삶과, 간디의 ‘죽음에 가까운 금식’의 의미, 스스로를 제물로 바치는 자기 희생의 정신, 미국의 사업가였던 지라르와 이탈리아의 영화 감독 파솔리니의 삶까지 두루 담겨 있다. 이 책의 독특한 매력이자 가장 흥미로운 특징은, 자신의 사상을 위해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죽음을 삶의 새로운 의미를 일깨우는 요소로 설명하면서 결국 생을 찬양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활기차고 유머러스한 설명과 풍성하고 폭넓은 정보, 영리한 풍자를 통해 철학은 삶의 기술일 뿐만 아니라 죽음의 기술, 즉 ‘잘 죽는 법’을 알려주는 학문이라고 이야기한다. 더불어 다양한 예술과 문학에 담긴 철학적 의미도 함께 소개된다.

<저자 소개>

코스티카 브라다탄(Costica Bradatan)은 텍사스 공과대학교에서 인문학부 부교수이자 호주 퀸즐랜드 대학 철학과 부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여덟 편의 저서를 내고 <뉴욕타임스>, <뉴 스테이트맨>, <보스턴 리뷰> 등 여러 간행물에 글을 기고했다.

제목 : HOW TO THRIVE IN THE NEXT ECONOMY

가제 : 인류 번영을 위한 새로운 경제

저자 : John Thackara

출판사: -

발행일: 2015년 가을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경제



에너지와 자원 부족으로 성장의 내리막길에 다다른 인류의 현실, 협력과 연대에서 찾는 해결책

에너지 수요는 점점 높아지고 필요한 자원의 양은 거의 무한대인 현실, 인류는 과연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현대 사회 곳곳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과연 있을까?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찾아 평생 전 세계를 방랑한 저자는 방법이 '있다'고 이 책에서 자신있게 답한다. 화려한 기술에만 의존하며 해결 방법을 찾느라 우리가 무시했던 요소들, 사람들이 모두 함께 일하고 조화를 이루며 살던 시절에 발휘되던 놀라운 창의력이 바로 그가 제시하는 해답이다.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사원이 관리하는 발리의 용수 관리 시스템부터, 빈에 마련된 혁신적인 전자 자전거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지구 곳곳의 폭넓은 사례를 통해 세계 주류 언론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다채로운 지역사회와 그들이 일으키고 유지해온 새로운 형태의 경제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경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주제로, 저자는 각 장에서 집, 음식, 의복, 건강, 이동 방법과 수단 등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자연 환경을 끝없이 이용하기만 하려는 방법 대신 자연을 충실히 관리하는 방식으로든 얼마든지 풍족하게, 필요한 것을 충족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마다 인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를 획득하는 새로운 방법을 생생한 예시와 함께 고찰한다. 1장 '변화'에서는 현재와 같은 파괴적인 시스템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 사실을 인지한 수백 만 명의 사람들이 결속과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하면서 책 전체의 주제와 변화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2장 '토양'은 산업적인 농업으로 우리의 자연 경관이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지 살펴보고, 손상된 땅을 되살리기 위한 과학계의 노력을 집중 조명한다. 3장 '물'에서는 물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생활, 강을 콘크리트로 막아버리고 분지와 범람원에 배수 시설을 설치하면서 빚어진 재앙과도 같은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지역사회와 과학계의 협력을 통해 도시에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

최첨단 기술과 개발을 버리고 자연,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만이 인류 발전을 지속시킨다

이어지는 4장 '주거'는 도시의 형성으로 우리가 치러야 했던 막대한 대가에 주목하여, 환경을 덜 손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도시 생활의 방향을 제시한다. 5장 '음식'은 산업화된 식품 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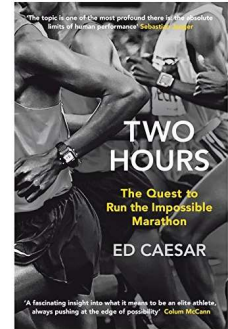
산의 문제, 초대형 농장이 소형 농장에 끼친 피해를 살펴보고 그 결과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과도 직결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불어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시키는 방법 등 식품 생산과 공급 체계를 정상화시키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6장 ‘의복’은 패션 업계가 지속 가능성과 이윤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짚어보고, 기성복 제조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알아본다. 이어 환경친화적인 목화 재배 사업과 지역 단위의 섬유 산업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한다. 7장 ‘이동’은 인류가 비용도 많이 들고 환경도 오염시키는 이동 수단과 방법에 중독된 상태라는 진단과 함께, 이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동의 필요성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보면서 전자 자전거 네트워크 등 대체 이동 수단을 고민해본다.

8장 ‘건강’에서는 값비싼 최첨단 기술에만 집중하는 의학계의 현실을 비난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를 두고 개개인의 건강을 세심히 살피는 방식이 인류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9장 ‘평범함의 가치’에서는 소위 ‘개발도상국’으로 불리는 나라의 사람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방법과 기술이 되려 경제적으로 발전한 서구 사회의 생활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더불어 사회를 운영하고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마지막 10장 ‘지식’에서는 인간성과 자연 개발 사이에 너무나도 막대한 격차가 발생해버린 그 동안의 과정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단편적으로나마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 변화할 때 비로소 현재의 병든 문명을 치유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이 저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다. 삶의 가치를 새롭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고민해볼 수 있는 책이다.

<저자 소개>

존 타카라(John Thackara)는 디자인과 혁신을 위해 공부하고 일하는 학생들, 전문가들의 국제 커뮤니티인 ‘The Doors of Perception’의 창립자이자 대표이다. 네덜란드 디자인 연구소, 영국 왕립예술학교 등 전 세계 40개국 이상을 돌며 강의를 했다. 저서로는 《In the Bubble: Designing in a Complex World》, 《Design after Modernism: Beyond the Object》 등이 있다.

제목 : TWO HOURS
가제 : 두 시간: 마라톤 신기록을 향하여
저자 : Ed Caesar
출판사: Simon & Schuster
발행일: 2015년 10월 27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스포츠



불가능한 목표로 여겨지는 '2시간'의 마라톤 세계신기록, 그 목표를 향해 달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고대 그리스까지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는 전통적인 올림픽 종목 마라톤. 오늘날 마라톤은 프로 선수부터 아마추어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거대한 산업이 되었다. 마라톤 선수들은 서로를 앞서기 위해 경쟁하고 그리고 자신의 기록을 깨기 위해 싸운다. 그러나 특별히 선택된 소수의 선수들에게는 궁극적인 목표가 따로 있다. 바로 마라톤을 두 시간 내에 완주하는 것이다. 두 시간의 벽은 마라톤이라는 장거리 달리기 of 최종 목적이자 오랜 세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목표로 여겨져 왔다. 2006년까지만 해도 마라톤 선수나 과학계 모두 한 목소리로 절대 이를 수 없는 불가능한 목표라고 이야기했지만, 최근 새롭게 등장한 아프리카 선수들이 이 마의 기록에 서서히,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 이제는 마라톤을 2시간 내에 완주하는 기록이 곧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다음 세대쯤 되면 가능하리라 점치는 사람들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이 두 시간의 기록을 처음으로 깨는 사람은 스포츠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부유한 스타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인간의 지구력을 시험하는 모든 방법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꽃과도 같은 마라톤과 인체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인간의 끝없는 도전을 이야기한다.

42.195 킬로미터를 두 시간 안에 주파한다는 것. 이는 에베레스트 산의 정복에 비유될 정도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상이 코 앞에 보인다. 두 시간 내에 완주하려면 엄청난 속도로 달려야 한다. 실제로 마라톤 대회를 현장에서 보면 선수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리는지 느낄 수 있다. 두 시간의 기록은 수치상으로 1천 미터를 2분 50초 64에 달려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100미터 기준으로 17초 만에 달려야 하고, 그 속도로 422번 연이어 달릴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2014년 9월, 베를린 마라톤에서 우승을 거머쥔 케냐 선수가 세운 세계 신기록은 무려 2시간 2분 57초로 불가능한 기록에 성큼 다가섰다. 마라톤 세계 신기록은 계속해서 단축되고 있다. 이 추세라면 정말 꿈에 그리던 2시간의 벽이 허물어질 날도 멀지 않았다.

오랜 세월 인류를 매혹시킨 마라톤, 인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불굴의 용기, 그 역사와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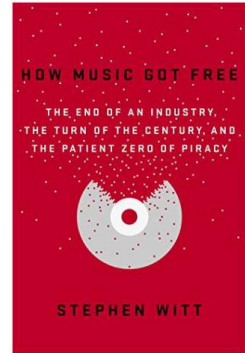
엄청난 속도와 강력한 정신력, 지구력이 모두 갖추어질 때 성취할 수 있는 이 목표를 위해 선수는 더 용감해져야 하고,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운도 더 많이 따라야 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엘리트 중에서도 엘리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마라톤 선수들을 소개하고, 그들 각자가 지닌 개성과 특별한 재능, 힘든 삶의 모습과 더불어 역사적으로 더 빨리 더 길게 달리기위해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본다.

운동 경기 중에서 가장 민주적인 시합인 마라톤, 마라톤이 오랜 세월 사람의 마음을 매혹하고 인간의 한계에 끝없이 도전하도록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케냐, 뉴욕, 베를린을 넘나들며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마라톤 선수들과 마라톤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인류 전체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역사, 과학, 생리학, 심리학이 어우러진 풍성한 정보로 마라톤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 소개>

에드 시저(Ed Caesar)는 영국에서 비소설 분야 기고가로 활동 중이다. 아프리카 내전, 스포츠, 살인 사건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뉴욕 타임스>, <GQ>, <선데이 타임스>, <스미소니언 매거진> 등 여러 간행물에 실었고 총 9번에 걸쳐 기자 상을 수상했다. 위 도서는 그의 첫 저서다.

제목 : HOW MUSIC GOT FREE
가제 : 음악은 어떻게 공짜가 되었나
저자 : Stephen Witt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5년 6월 16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대중문화



디지털이라는 형태로 어느 날부터 무료로 무한정 유포되기 시작한 음악, 그 시작은 어디일까?

“한 세대 전체가 전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황당하게만 들리는 이 질문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어떨까? 아마 우리 대부분이 ‘범인’에 해당될 이 ‘범죄’의 대상은 바로, 불법복제된 음원이다.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로 벌어진 불법 복제, 혹은 저작권 침해 사태가 어떻게 시작됐고 전개되었는지, 음악 산업의 가장 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그 과정에서 혁명과도 같은 하나의 발명품과 아이튠즈 뮤직 스토어보다 덩치가 네 배는 큰 불법 웹사이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낱낱히 파헤친 이야기들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지금껏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 이야기는 탐욕과 교활한 욕심, 천재적인 아이디어, 사기 행각이 뒤엉킨 음악 업계의 어두운 이면이자 인터넷의 역사다.

기자인 저자 역시 자신이 아주 쉽게 불법 복제된 음원을 이용하고 유포하기 시작한 인물 중 하나였다고 고백한다. 2005년 저자가 뉴욕에 살면서 모아들인 음원만 1,500 기가바이트 용량으로, 앨범으로 치면 1만 5천장 분량이었다. 전부 다 들으려면 재생 시간이 1년 하고도 반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이 음원들은 채팅 사이트나 토렌트 사이트 등을 통해 곳곳으로 유포됐다. 직접 돈을 지불하고 구입했던 음반들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지하실에 처박혀 있었지만 디지털로 된 그 엄청난 양의 음원은 신발 상자 하나에 충분히 보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저자는 자신이 그토록 많은 음악을 가지고 있어도 듣고 감상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게 된다. 그럼 왜 그렇게 음원을 모아들였을까? 저자는 양심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질렀던 그 수집 행동의 저변에는, 똑똑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해하는 세계의 일원이 되고 싶은 이상한 열망이 있음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마음이 불법 복제 세계를 지탱하는 힘이자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비뚤어진 유혹의 근원임을 알게 된다. 디지털 음원을 소유하고 제공하는 행위는, 정말로 음악을 사랑하거나 듣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다. 행위 자체가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개인의 탐욕과 집착, 돈이 만들어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복제, 그 씁쓸한 역사와 결과

디지털 음원이 인터넷에 넘쳐나기 시작하기 전에는 음반 수집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취미이자 문화였다. 실제로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음원을 복제하는 일을 회의적으로 생각하며 적대감을 격렬히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복제에 담긴 심리를 고민하던 저자는 문득 근원

적인 의문을 떠올린다. 대체 이 많은 공짜 음원은 맨 처음에 어디서 만들어진걸까? 누가, 어떤 방법으로 처음 시작한걸까? mp3가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불법 음원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정작 그 ‘기술’이 처음 세상에 등장한 이야기는 제대로 전해진 적이 없다. 저자는 호기심을 극도로 자극하는 이 주제를 파헤치기 시작했고, 이 책에 그 이야기를 모두 담았다.

디지털 음원의 불법복제, 그 시초를 추적하고 나선 저자는 mp3를 발명한 독일의 오디오 엔지니어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느 CD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델 글로버라는 직원이 10년여에 걸쳐 2천 장에 달하는 앨범을 유출시킨 사건, 맨하탄의 고층빌딩이 줄지어선 중심가에 자리한 음악업계의 대형 인사가 전 세계 음반 시장을 궁지로 몰아놓은 이야기, 그리고 인터넷의 어느 구석진 곳에서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지는 복제와 유통의 실태를 접하게 된다. 한 사람이 시작한 어쩌면 사소한 범죄가 인터넷이라는 전 세계 곳곳으로 뻗은 가지를 타고 돌이킬 수 없는, 폭발적인 결과를 일으킨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저자가 들려주는 스릴 넘치는 생생한 사실 속에서 창익의 산업의 미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책이다.

<저자 소개>

스티븐 위트(Stephen Witt)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증권 회사에서 헤지펀드 관리자로 일하다가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다.

제목 : BRAND PSYCHOLOGY
부제 : Consumer Perceptions, Corporate Reputations
가제 : 브랜드 심리학
저자 : Jonathan Gabay
출판사: Kogan Page
출간일: 2015년 3월
분량 : 440 페이지
장르 : 경영, 심리



브랜드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파헤친 브랜드의 심리학

왜 소비자들은 어떤 특정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보다 더 신뢰하는 것일까? 'Integrity(정직함, 성실함)'라는 특성은 한 브랜드의 생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과연 브랜드는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평판을 세울 수 있을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과 더불어 현대 브랜드에 대한 개념과 문화적 가치, 그리고 소비자의 욕구를 담고 있는 책이다. 언론 관계, 위기 관리 그리고 평판에 대한 심리학과 소비자 동기유발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내/외부적으로 브랜드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과 기술을 보여주며 현대 브랜드 이미지 전략에 대한 폭넓은 인식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대부터 현대까지의 사회심리, 인지심리, 신경과학 연구자료들을 담아낸 이 책은 특정 브랜드가 소비자의 신뢰와 충성도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파헤친다. 'Reputation Management(평판 관리)'의 전문가인 저자는 기업, 정치, 그리고 개인 브랜드들을 다루며 그들이 가치로 삼는 소비자 심리를 그려내고 전자담배 법안이나 아이폰 5S의 지문인식 기술, Barclay의 자전거와 2012년 런던 올림픽, 마일리 사이러스 등 수많은 사례를 통해 의미 있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또한 사람들이 브랜드를 인식해나가는 과정과, 이것이 어떻게 소비자의 마음을 파고들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하며, 현대의 소통 위기와 브랜드 전략을 소개하고 도덕이나 소비자 인식, 빅데이터, 언론활동, 현대 CEO들의 심리와 브랜드 스토리텔링의 기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인지심리, 신경과학 등의 연구자료들과 각종 사례연구로 보는 브랜드 마케팅의 모든 것

좌뇌와 우뇌 두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 이 책은 먼저 브랜드와 사회, 신뢰의 역사를 역사를 훑어본다. 신뢰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토대로 저자는 브랜드 심리학과 믿음, 진실성, 그리고 평판이라는 개념을 분석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다룬다. 두 번째 파트인 우뇌 부분에서는 브랜드 관리의 뒷편에 서있는 사람들, 즉 지도자나 관리자들에 중점을 두고 언론의 끊임없는 주시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들이 어떻게 정직함 혹은 진실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나 위기관리 전략을 다룬다. 또한 위기 관리와 실패를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적인 관점을 다루며 브랜드의

위기 관리, 평판 관리가 어떻게 브랜드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자세히 보여준다.

이 책은 신경심리학자와 경제학자, IT나 광고, PR업계 종사자들의 수많은 사례연구 자료들을 통해 이 책은 이론을 실질적인 방법론으로 바꾸어 의미 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저자는 브랜드 대표들의 심리학적 소통 방법이나 소비자 심리를 설명하는 심리학적 근거, 그리고 브랜드를 통해 소통하는 과정에서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브랜드의 강점을 살리는 스토리텔링은 어떤 것이 있으며 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보여준다. 총 22챕터에서 소개되는 수많은 사례별 예시, 최신 과학 연구자료들과 챕터별로 열댓가지의 포인트로 보기 쉽게 정리된 이 총체적인 브랜드 심리학은 마케팅과 PR 계 종사자들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총체적인 가이드라 할 수 있다.

<저자 소개>

저자인 Jonathan Gabay는 크리에이티브 전략가이자 교육자, 작가이다. 그는 30년 이상 마케팅과 광고 분야에서 일해왔으며 Saatchi Direct의 기업 크리에이티브 전략가로 일하기도 했다. 창의적 광고 마케팅, PR, 언론과 교육계의 가장 선구적인 인물들과 함께 일해왔으며 그의 저서는 학계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또한 카피라이팅으로 수많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CNN 이나 ABC, BBC나 Bloomberg에 정기적으로 출연하고 있다.

제목 : THE COURAGE TO TRUST

가제 : 믿을 줄 아는 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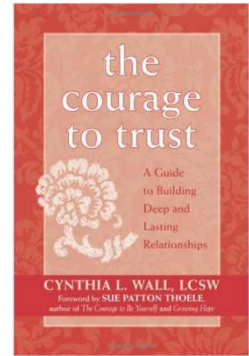
저자 : Cynthia Wall

출판사: New Harbinger Publications

발행일: 2005년 1월 2일

분량 : 176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배신의 기억이 낳은 뿌리 깊은 불신,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는 방법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이 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힘들어하는 의심과 불신에도 적용할 수 있는 속담이다. 실제로 과거에 경험한 배신의 기억은 오랜 세월 사람을 경계하고 믿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나 남을 믿지 못하면 외로워지고 고립감에 또 다시 괴로워하게 된다. 게다가 잘못된 대상을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다. 저자는 누군가를 신뢰하는 일이 너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이 책에 담았다. 다행스러운 사실은, 신뢰는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자 얼마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이다. 저자는 과거의 일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신뢰하는 마음이 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어린 아이들과 달리 성인은 언제, 어떻게 신뢰를 주어야 할지 각자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더불어 자신감을 키우고, 타인을 믿고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보들을 이 책에서 제시한다.

총 10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각 장마다 신뢰, 친밀감, 배신과 관련된 핵심 주제를 하나씩 다룬다. 1장 ‘신뢰란 무엇인가?’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신뢰하는 법을 다 아는 사람은 없으며,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신뢰’에 대해 나름의 정의를 갖게 된다는 설명과 함께 어쩌서 남을 믿으려면 ‘용기’가 필요한지 그 이유와 신뢰의 특성, 종류에 대해 알아본다. 남을 믿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지, 또 자기 자신과 타인을 지금 얼마나 믿고 있는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도 제공된다. 2장 ‘세 가지 핵심 자아’에서는 어린아이, 보호자, 성인으로 각각 나눌 수 있는 세 가지 자아를 소개하고 각각의 특징과 형성 과정, 역할, 목표를 설명한다. 현재 자신에게 어떤 자아가 유독 강하게 발달되어 있는지 짚어보고 그것이 신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장 ‘신뢰는 친밀감으로 이어진다’에서는 정상적인 친밀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그러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과 관계 형성을 가로막는 요소들에 대해 알아본다. 4장 ‘배신감을 느끼는 순간’에서는 배신의 종류와 형태, 앞서 설명한 세 가지 자아가 각각 배신감에 대응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사소한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시키지 않으면서 불신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한다.

먼저 나 자신을 믿고 믿음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방법을 친절하게 소개한 따뜻한 지침서

이어지는 5장과 6장에서는 우리 자신도 남과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꼬집고, 스스로가 만드는 이런 상처들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을 알아본다. 더불어 그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7장에서는 각자의 신뢰 패턴을 찾는 법을 이야기하고, 8장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신뢰를 쌓는 법, 9장은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의 기로에 섰을 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 10장에서는 신뢰를 갖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부터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러려면 일상생활에서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 설명한다.

케케묵은 배신의 기억은 던져버리고 서로간의 믿음과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토대로 조금씩 믿음을 쌓아가는 방법을 친절히 소개한 지침서로, 저자는 스스로가 느낀 배신감이라는 감정이 과연 적절한 수준인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 누구나 남에게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상처를 딛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길을 열어준다.

<저자 소개>

신시아 워(Cynthia Wall)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사회 복지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개인, 부부 상담사로 일하고 있다.